

보 도 해 명 자 료 (‘19. 5. 29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최근 원전인력들의 퇴직, 이직, 채용 등 변화가
에너지전환정책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
않습니다.

(조선일보 5.29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)

◇ 원전 인력들의 퇴직, 이직, 채용 등 변화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
으로 작용한 결과이며, 이를 정부의 ‘에너지전환 정책’ 때문이라고
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.

◇ 정부는 에너지전환 보완대책(‘18.6)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면서,
원전 핵심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.

◇ 5월 29일 조선일보 <원전 인력 엑소더스... 자발적 퇴사 2배,
원자력자 퇴 1.4배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1. 보도 내용

□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전문 인력의 엑소
더스가 가속화 되고 있음

❶ ‘17년~’18년 한수원, 한전기술, 한전KPS의 자발적 퇴직자수가 크게 증가함

❷ ‘17년 이후 한수원, 한전기술의 인력 14명이 UAE 원전 관련
업체로 이직함

❸ ‘16년 대비 ‘18년 일부 원전 관련 공기업·연구소들의 신규채용이 감소함

2.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원전 인력들의 퇴직, 이직, 채용 등 변화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
으로 작용한 결과이며, 이를 정부의 ‘에너지전환 정책’ 때문이라고
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

< ❶ 원전 공기업의 자발적 퇴직자수 증가 관련 >

○ ‘18년 3개 공기업(한수원, 한전기술, 한전 KPS) 원전 관련 종사자의
자발적 퇴직은 전체 인원 대비 미미한 수준임(약 1.1%, 144명/13,385명)

- 이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‘17년 평균 이직률 4.7%*(대기업 2.8%,
중소기업 5.0%)와 비교해도 훨씬 낮은 통상적 수준이며,

* 출처 :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(‘18.3)

- 에너지전환정책 이전인 ‘15년(0.7%, 78명/11,995명), ‘16년(0.7%, 93명
/12,666명)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음

○ 또한, 3개 공기업은 원전 뿐만 아니라 화력, 수력·양수, 신재생
등 사업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, 동 기업들의 자발적 퇴직자에
대한 평가는 원전과 비원전분야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타당

- 3개 공기업들의 비원전분야의 자발적 퇴직자도 원전분야와 유사
하게 증가한 것으로 볼 때, 단순히 에너지전환 정책의 영향이
라고 단정할 수 없음

<공기업 분야별(원전vs비원전) 자발적 퇴직자 변화>

		‘15~’16	‘17~’18	증가율
한수원	원전	95명	143명	50.5%
	비원전	13명	21명	61.5%
한전KPS	원전	41명	83명	102.4%
	비원전	51명	139명	172.5%
한전기술	원전	35명	38명	8.5%
	비원전	19명	12명	△36.8%

< ②원전 공기업 인력들의 UAE로의 이직 관련 >

- UAE는 우리나라가 4기의 원전을 수출('09년)한 국가이며, 우리나라와 건설·운영·투자·정비 등 공동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
- '17년부터 UAE 진출이 확대된 것은 '16년 Nawah Energy가 새로 설립되면서 해외인력 채용을 본격화했고,
- '16.7월 한수원이 ENEC와 파견인력공급 계약을 체결('30년까지 약 3천명 규모)하면서 우리 인력들의 파견이 본격화되어 취업기회가 확대되었기 때문임
- 따라서, UAE로의 인력 진출이 늘어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, 이를 '인력 유출'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은 해석임

< ③공기업·연구소 신규채용 감소 관련 >

- 한전기술, 한전KPS, 원자력연구원에서는 '16년 대비 '18년 신규 채용이 증가한 바, 모든 원전 관련 공기업·연구소에서 신규채용이 감소한 것은 아님

<주요 원전 공기업·연구소의 신규채용 인력 변화>

(단위: 명)	2016	2017	2018
한국수력원자력	822	603	427
한국전력기술	72	55	90
한전KPS	210	284	482
한국원자력연료	110	38	22
원자력환경공단	22	16	18
한국원자력연구원	112	46	183
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	65	6	43
합 계	1,413	1,048	1,265

- 한수원의 '16년 신규채용이 높았던 것은 '14~'16년 동안 UAE 원전 건설·운영 관련 정원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

* UAE 원전 건설·운영 관련 정원 증가분 : ('14) 767명 → ('15) 170명 → ('16) 81명

□ 정부는 에너지전환 보완대책('18.6)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면서, 원자력 핵심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음

- (핵심 인력 유지) 원전 공기업별 핵심인력 유지대책을 충실히 추진 ('18.11~)하여 원전 핵심인력 유지에 노력
- (원자력 전공자 채용비중 확대) 한수원 원자력 전공자 채용비중을 13%('15~'18 평균) 수준에서 30%('19~'23 평균)까지 확대
- (원자력 R&D 등 지원) 전국 16개 원자력학과 대상 융합교육을 지원(에너지인력양성사업)하고, R&D 로드맵(Nu-Tech 2030, '19.上)을 수립하여 안전, 후행주기(해체·방폐) 중심의 R&D를 지원

※ 문의 : 원전산업정책과 서기웅 과장 / 유의택 사무관(044-203-5325)